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시대는 준비해 온 사람들의 몫이다.

나직나직 읍조리는 구시포 명사십리

백제 땅 방등산 노래, 선운산 노래, 웃동네 정읍사까지 쏘근거리며 온다

그래, 우리는 고창 사람들이다

어디에 서 있어도 고창사람, 고창사람

-진동규 '우리는 고창사람' 中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희망, 다산의 상징, 황금돼지 해입니다.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활기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고창군은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를 향한 본격적인 노력을 당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농수산업의 최적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브랜드를 더욱 선명하게 살리고, 전북도의 농생명클러스터와 연계해 '한국인의 먹을거리 창고, 고창'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려 상생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고창의 깨끗한 자연생태와 문화역사자원을 잘 엮어 찾아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고창으로 가꿔 군민 소득으로 연계 하겠습니다. 자식농사 잘 짓는 고창, 사람 키우는 고창으로 평생학습도시, 문화교육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눔과 기부의 천국'을 만들어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고창군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지식과 일과 문화를 공유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의 일상화와 실천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과 한국 지역도서대전도 성공적으로 치러내 천하제일강산 고창의 기를 살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고창군 공직자들은 군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땀 것입니다. 돼지는 예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황금역시 재물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의 꿈과 기대를 거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력하는 '평이근민(平易近民)'의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창 물건을 사고 지역기업을 키우며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에 모두 손잡고 울력하며 함께 갑시다. 군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면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통일 한반도의 첫 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기해년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 1. 1
고창군수 올림.

고창군, 우렁찬 모양성 북소리로 기해년 시작 알려

군민 1000여명 참여해 고창의 안녕과 번영 염원

1일 아침에는 고창읍성 장대봉, 대산면 법우선사, 고창 상하 장사산 일원서 해맞이



“셋, 둘, 하나!! 둥!둥!둥!!”

1월1일 오전 0시,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천지를 깨우는 우렁찬 북소리 서른세번이 울려 퍼졌다.

고창군이 지난 12월31일 밤 군민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행사를 열었다. 고창군의 역사적 상징인 모양성에서 여는 해넘이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군민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행사가 열리는 고창읍성 광장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사전 행사로 진행된 문화행사에선 국악부터 팝페라, 클래식기타,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펼쳐졌고, 아이부터 어른, 다문화 가정까지 모두한테 어우러져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 했다.

본 행사에는 고창군민의 새해희망을 담은 영상이 띄워졌다. 전 군수님들의 바람과 종교계, 사회단체, 농어민까지 나라의 안녕과 고창의 발전을 염원했다. 드디어 오전 0시, 불타는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택배기사 유동운씨 등 33명의 군민대표가 참여해 총 33회 북을 울리는 타고식으로 행사의 절정을 맞았다. 끝으로 1000여명의 군민이 화합과 희망을 담아 ‘손에 손잡고’를 합창하며 대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1월1일 새해 아침에는 고창읍성 장대봉과 대산면 법우선사, 상하면 장사산 일원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세밀 한파 속에서도 1000여명의 해맞이객이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기원제와 기원축문 봉독, 새해덕담 나누기 등 새해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떡국과 따뜻한 차, 기념품이 준비돼 새해맞이 즐거움을 더했다.

군민과 함께하는 울력시무식 열고 본격업무 시작

행사장 개방...시낭송 시작으로 군민대표 군정제언 이어져

고창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2019년도 울력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1월2일 고창군은 오전 10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고창군수와 각 실과소·읍면장 전 직원과 일반 군민 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었다.

특히 이날 시무식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무식’을 테마로, 참여를 원하는 남녀노소 모든 군민들에게 행사장을 개방했고, 신년사와 군정방향보고 이외 시낭송과 군민대표 군정제언(고창군에 바란다)도 진행됐다.

고창군수는 시무식 자리에서 “자랑스런 군민들과 하나 돼, 손잡고 함께 간다면 꿈은 이뤄질 것이다. 모두 하나가 돼 박수치고 격려하는 고창군민이 되자”며 “고창군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9년 고창군, 농생명식품·문화관광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

2국 15과 1담당관 1TF... “현장성·역동성 강화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민선 7기 고창군이 농생명 식품과 문화관광을 최우선에 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본격업무에 돌입했다. 고창군은 기존 ‘14실과 71팀 2TF’를 ‘2국(농수축산경제국, 문화복지환경국) 15과 1담당관 1TF’로 변경하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가장 큰 변동사항으로는 농생명지원과에 복분자베리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신설된 농어촌식품과에 식품산업, 마케팅, 수출, 지역공동체를 소관팀으로 두게 됐다.

문화복지 분야에선 기존 문화관광과에 문화유산을 더한 ‘문화유산관광과’가 신설됐고, 문화유산, 관광진흥, 관광개발, 고인돌유적을 전담팀으로 두고 고창군의 역사문화 관광정책을 이끌게 됐다. 이밖에 사회복지과에 희망나눔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스포츠마케팅팀이 새로 생겼다.



고창군의회 2019년 시무식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1월 3일 본회의장에서 조규철 의장, 유기상 군수, 군의원, 사무과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조규철 의장은 신년사에서 “무술년 한 해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6만여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해년 새해에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고창군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모두가 풍요롭고 좋은 일이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제8대 고창군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고창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창군의회는 새해 아침을 맞아 제8대 의회 의정 목표인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고창군의 정책에 대해서는 질타보다는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겠으며, 상생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신뢰와 화합을 중요시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과 함께 고민하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 1.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

고창군 의회, 행안부·문체부 방문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재검토 건의



고창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직원 12명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문’을 건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다.

고창군의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국적인 참여를 알리는 최대규모의 민중항쟁의 상징적인 날인 4월25일 무장기포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문체부 평가기준 중 ‘지역참여도 평가’ 항목 관련해선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대표돼야 할 법정기념일을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2019년 상반기 의정설계

▶ 운영위원회 ◀

❖ 소속의원(5명)

– 이경신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최인규 의원, 이봉희 의원, 임정호 의원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운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덧붙여 비회기 동안에도 지속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의원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군정에 대한 사전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누수 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짐했다.

▶ 자치행정위원회 ◀

❖ 소속의원(5명)



이봉희 위원장



김미란 부위원장



최인규 의원



조민규 의원



김영호 의원

군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사업발굴과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 등 활기찬 고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산업건설위원회 ◀

❖ 소속의원(4명)



임정호 위원장



차남준 부위원장



진남표 의원



이경신 의원

의정활동 방향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협조와 견제를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방안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회기 운영계획

회기 (예정)일수 : 총 79일(정례회 41일, 임시회 38일)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별도

정례회 및 임시회

일 정	기간(일)	내 용
계	28	정례회 41, 임시회 38
1.14. ~ 1.15.	2	군정 업무보고, 의안심의
2.19. ~ 2.27.	9	실과소별 업무보고, 의안심의
4.23. ~ 4.30.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안심의
6.18. ~ 6.26.	9	결산검사승인, 군정질문, 의안심의
7. 9. ~ 7.17.	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의안심의
9.18. ~ 9.25.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의안심의
10.15. ~ 10.16.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의안심의
11.12. ~ 12.13.	32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시책보고,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14일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경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이봉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창군, 천연기념물 ‘황새’ 무리 찾아와 ‘관심 집중’

옛부터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와

고창군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 무리가 관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해리천 인근에서 황새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로부터 황새는 한반도에 고루 분포하며 우리 민족의 사계절과 더불어 살아온 텃새로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렵과 환경오염 등으로 현재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국제자연보호연맹에 세계적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 199호와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황새 출현에 대해 지역 자연생태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생태계 멸종위기종의 최적의 서식환경을 갖추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태계 최상의 환경에서만 사는 황새의 출현으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앞으로 더 많은 황새가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고인돌박물관, 개관 10년 만에 ‘1종전문박물관’ 등록

가보 선뜻 내놓은 9명의 기증자로부터 101점의 소중한 유물 수증이 큰 역할



고창고인돌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국가귀속 유물의 위탁관리 등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이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고인돌유적 보존관리과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 2008

년 건립된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지난 12월27일 전라북도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결정됐다.

이번 박물관 등록은 고창고인돌유적을 전문적으로 해설하고, 선사시대 유물의 보존관리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국가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지역에선 국가인종 박물관이 없어 고창군내 발굴된 국가귀속 유물을 국립전주박물관 등에서 봐야 했다. 반면, 이번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국가귀속 유물 위탁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고창군은 올해 고인돌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박물관 법정 등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물 기증 등에 공을 들여왔다. 이후 지난해 고창문화연구가 이병렬씨가 소장하고 있던 10점을 선뜻 내놓은 등 모두 9명의 기증자로부터 101점을 수증했다.

또 선사시대, 초기 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유물 총 60점을 구입해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고인돌 관련 유물을 갖추게 됐다.

고인돌박물관 관계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승유물과 오랫동안 소장해온 소중한 유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군민들의 기증정신이 이룩한 성과다”고 말했다.

2018년 고인돌박물관 유물 기증자

고창군의 문화와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기증자분들의 소중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병렬(고창읍, 청자광구병 등 7점), 전일재(아산면, 돌도끼 등 20점), 전풍중(고창읍, 승석문 향아리 등 3점), 최남희(고창읍, 둥근바닥향아리), 신연수(부안면, 반달이 등 3점), 백원석(부안면, 반달이 등 7점), 조정호(고창읍, 백자접시), 신림초등학교(홍정임교장 외, 돌도끼 등 52점), 이주홍(전주시, 토기호 등 5점)

고창모양성제, 4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 선정



고창군 모양성제, 4년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
“역사문화관광 축제 면모 재확인”
국내·외 유일 답성놀이 소재 축제...
“선조들의 유비무환과 협동정신 엿볼 수 있어”

고창 모양성제가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4년 연속 선정돼 명실상부 역사문화관광 축제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에 고창 ‘모양성제’가 4년 연속 유망축제로 올랐다.

고창모양성제는 3000년 전 고인돌 시대부터 한반도의 문명사적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대표축제다.

특히 국내의 유일한 답성놀이를 소재로 한 축제로 역사와 전통, 현대가 한데 어우러져 선조들의 유비무환과 협동정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또 모양성 축성에 참가했던 조선시대 전라도 17개 고을의 깃발을 다는 ‘고을기 올림식’과 조선 시대 원님 부임행차, 조선 시대 복식을 갖춘 가장행렬단의 거리 행진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고창읍성’의 성 밟기는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성이 날씨가 풀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고 성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창읍성의 축성과 유지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모범을 현대에 재현하면서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깨우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고창모양성보존회와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6회 고창모양성제는 오는 10월7일(음력 9월 9일 중양절) 전후 5일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배드민턴 꿈나무, 고창군 찾아 구슬땀



숙박·음식점 손님 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노릇

고창군이 전국의 배드민턴 유망주와 지도자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전국의 배드민턴 꿈나무 선수와 지도자 47명이 동계전지훈련으로 지역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전지훈련은 전국 초등부 배드민턴 선수들이 열흘(3~17일)간 고창군립체육관 일원에서 실력향상을 위한 훈련에 매진한다.

또 이달 25일부터는 전북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해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 5개 팀 선수와 지도자 130여명의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야구(파주금릉중), 미식축구(단국대), 수영(군산 신봉초)팀도 전지훈련차 고창을 찾는다.

이처럼 고창군이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잘 갖춰진 체육시설, 장어·복분자를 비롯한 영양만점 먹거리 등 전지훈련에 필요한 여건이 잘 갖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고창군과 체육회의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예약이 몰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지훈련이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관계자는 “전지훈련으로 고창군을 찾은 많은 팀들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시설물을 잘 활용해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관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위생지도 등을 통해 훈련팀의 컨디션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마이스산업지원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고,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는 등 ‘돈 되는 체육행사’ 유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사람이 제일 귀하다’ 전봉준 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 열려

“동학혁명정신 계승해 새로운 역사를 향한 꿈 이어가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 16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보국안민과 제폭구민 등 혁명정신 계승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수, 군의회 부의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천도교 중앙총부 이법창 종무원장, 박남준 교무관장, 전성준 전봉준 장군 후손, 전해철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정신을 계승해 지역은 물론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녹두장군 전봉준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봉정의식으로 현수, 봉정, 163송이의 현화와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끌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죽령고(대나무즙에 술엿, 참포 등과 발효한 증류주)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만백성이 마음을 함께하여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고문’을 선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출발을 알린 역사적인 곳이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황금돼지해 신년 인사회 개최



“소통과 화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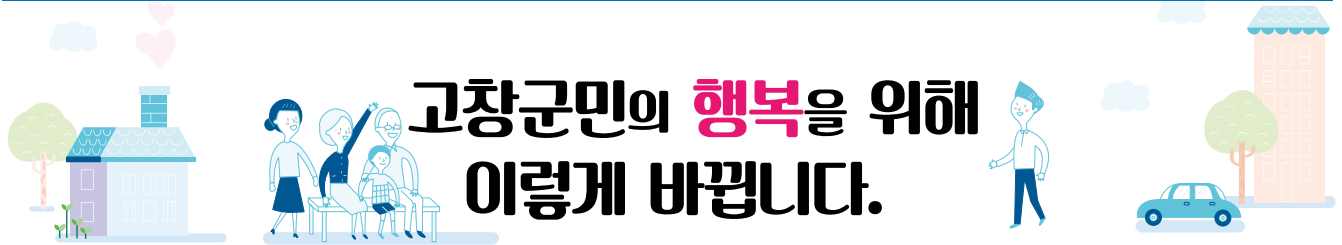
한반도 첫 수도 자랑스런 고창 만들기 앞장 설 것”

고창 출향인사와 군민이 함께한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안재식) 신년 인사회가 10일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고창군수를 비롯해 각계각층 3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고명인 전 지점장(NH농협은행 고창군청 출장소)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신년사 및 축사, 새해 힘찬 출발을 염원하는 떡케이크 절단식 등이 진행됐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매년 애향대상 선정과 고창인재 장학금 수여 등 고창인재 키우기에 앞장서며 자랑스런 고창 만들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재경고창군민회(회장 김광중)와 재전고창군민회(회장 이익희) 등 재외군민과 군민이 서로 간 덕담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재식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고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옛부터 인향, 의향의 고장인 고창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애향운동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민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바꿉니다.

I. 경로 이·미용비 지원 (80세 이상)

고창관내 만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 지원으로 품위유지와 자존감 회복의 기회제공

주요내용

- 대 상 : 고창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5300여명
- 지원내용 : 이·미용비 지원(연 1회 / 6만원)
- 지원방법 : 고창관내 이·미용실에서 바우처카드로 결제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1년)내에 미 사용시 바우처카드 사용 자동종지
- 사 업 비 : 3억1800만원(군비)

2.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사업

농기계 운송에 따른 상·하차 위험 등
안전사고예방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운영개소 : 27개소(고창읍, 해리면)
※ 서남권 임대사업소(정읍시 소성면)
- 운송기종 :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전기종(65종 444대)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비로 농기계를 마을회관까지 운송
- 사 업 비 : 5억원(군비)

3. 농작업 대행사업 (시범사업)

농기계임대 취약계층(고령·여성농업인) 농작업
대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개소당 운영농기계 : 트랙터 2대, 로터리 2대, 쟁기 2대
- 사업내용 : 고령,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의 소규모 영농대행
- 사 업 비 : 1억3600만원(군비)

4. 신랑·신부 결혼 비용지원

결혼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세대 확대에 출산율 및 인구증가 유도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부터
- 대 상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고창군에 거주한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군민
※ 단 고창군에서 결혼할 경우에만 지급하며 부부가 모두 대실지일 경우 한명만 지급
- 사업내용 :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의 일정금액 지원
- 사 업 비 : 1억원(군비)
※ 커피를 당 100만원 지원(총 100커피를 지원)

5.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7월 이후
- 가맹점 가입대상 : 5800개 업소(목표 : 2000개 업소)
※ 모바일 상품권 운영 수수료 등 제외
- 사업내용 : 고창사랑상품권을 제작·유통하여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지류 및 모바일 병행 시행)
- 사 업 비 : 1억4080만원(군비)

6.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령화된 시장 상인의 세대교체를 통해 전통시장 활력 제공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대 상 :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
- 공고일 기준 만39세 미만
- 사 업 량 : 3명
- 사 업 비 : 2700만원(군비)
- 사업내용 : 점포 입차료 및 점포 개선 비용 지원

7. 민원처리 문자(SMS) 안내서비스 구축

군민과 민원공무원에게 동시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처리지연을
예방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9. 1월 부터
- 사업내용
- 민원인 ⇒ 민원의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문자(SMS)를 통해 안내
- 민원담당공무원 ⇒ 담당자 지정 또는 처리기한을 문자로 안내

8. 농지 토양개량 사업 (전국최초)

노후화 되고 지역이 약화된 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을 통해 토양
환경 복원 및 지력증진으로 작물의 생산성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사업위치 : 고창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토양개량 (속효와 길효를 뒤집어 토양체질 개선)
- 사 업 량 : 60ha(시설 40, 노지20)
- 사 업 비 : 4억5000만원(군비 1억3500만원, 자부담 3억1500만원)

9. 친환경 소규모 동병 조성사업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게 지하수와 빗물등을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동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추진

주요내용

- 사업위치 : 고창군 관내
- 사업기간 : 2019. 1월 ~ 11월
- 사업내용 : 터파기, 부직포, 비닐, 안전시설, 안내 간판 등 지원
- 사 업 비 : 5250만원(군비 4200만원, 자부담 1050만원)

10.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시행

주요 승강장 버스 운행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 업 량 : 농어촌버스 33대, 관내 주요승강장 20개소
- 사업내용 : 농어촌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399백만원 (국비 119.7, 도비 79.8, 군비 199.5)

11. 경로당 실내 공기질 환경컨설팅

건강 취약 계층 시설인 경로당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오염물질 관리 및 실내 공기질 개선책을 제공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8월
- 사업대상 : 30개소(경로당)
- 사업내용 : 법적 규모 미만 취약계층 시설의 실내 유해인자 측정·분석 및 환경개선 컨설팅
- 측정항목 : 6개(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라돈)
- 사 업 비 : 1400만원(군비)

12. 배달전문음식점 식품안전 신호등급제

자율적 위생관리 유도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67개소(치킨 59, 야식당 등 8)
- 사업내용 : 위생등급 선정 및 관리
- 녹색등급 : 자율적 위생관리
- 황색등급 : 지적사항 개선 유도 및 점검체계 유지
- 적색등급 : 중점 점검 및 관리 강화
- 사 업 비 : 200만원(군비)

짓다 · 놀다 · 먹다, 상하농원

9 기업 탐방

햄, 빵, 장류 대표 상품

깨끗한 공정과 정성스런 손맛에 이끌려



“고창에서 자란 과일로 만든 달콤한 잼 한번 드셔 보세요”

고창군에는 공방을 운영하며 직접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2010년 1월 매일유업이 고창군에 사업투자를 확정 한 이후, 현재 농원, 공방, 숙박시설을 갖춘 상하농원이다. 상하농원은 햄공방, 빵공방, 과일공방, 발효공방 등을 운영하며 깨끗한 공정과 장인의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



상하농원의 대표 제품은 햄, 빵, 잼, 청, 장류 등이다. 천연 케이스(양장, 돈장)에 고기를 90% 이상 채워 넣은 쫄득한 소시지와 건염법으로 일주일을 염지해 만든 베이컨과 밍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햄을 만들고 있다. 빵은 우유향이 진한 우유 주름식빵부터 투박하지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10종 이상의 빵을 상하목장의 우유, 상하농원의 영양탄을 이용해 만든다. 잼과 청은 밍을 수 있는 고창군의

농가의 과일을 엄선해 열전도가 빠른 황동솥을 사용해 장인의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자연의 색과 향을 그대로 담았다. 장류는 청정 소나무 숲에서 비, 바람, 햇살을 더해 1000일을 발효 숙성한 한식 된장 중심의 전통 장류와 자연재료의 깊은 맛을 살렸다.

특히 상하농원에서는 소시지체험, 찹쌀케이크체험, 동물쿠키체험 등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 우유와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상하공장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웨딩, 연회, 세미나 등이 가능한



파머스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설명절을 앞두고 자연의 정성과 건강함을 담은 상하농원 공방 수제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임채문 대표는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에 장인의 정성만을 담는다는 바른 생산 원칙을 준수하여 사계절, 24절기 풍요로운 자연에 순응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홈페이지 : www.sanghafarm.co.kr

T E L : 1522-3698

고창 명품 농특산물 꾸러미로 설 준비하세요



풍부한 햇벌, 건강한 황토와 맑은 바람과 물, 농어민들의 성실한 땀방울이 가득 담긴 밍고 구매할 수 있는 고창농특산물.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실속 있는 명절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 엄격한 품질 관리로 탄생한 명품 농특산물과 함께 풍성한 명절 준비 하세요.

주문접수 : 농업회사법인 청맥

(www.chungmec.com, 063-561-0014)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마케팅팀(063-560-2701)

고창사랑 1호

3만원



제품명	쌀조청	마늘&양파	후추	생들기름
제조사	선운도원	해리농협	해리농협	호야농장
중량	420g	60g	60g	180g

고창사랑 2호

5만원



제품명	3색보리/현미	땅콩	죽염	김(지주식)
제조사	청맥	대성농협	삼보죽염	해리농협
중량	850/900g	500g	180g*2개	100매

고창사랑 3호

7만원



제품명	3색보리/현미	생들기름	식초(복분자)	복분자 순액
제조사	청맥	호야농장	상하복분자	선운산농협
중량	850/900g	180g	500g	700g

사서추천- 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칠십일의 비밀 : 대둔산 농민 혁명군, 꽃이 되고 봄이 되다.

이성수 / 고요아침 / 2018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대산근별도서관,
아산선운산도서관, 고수도서관, 해마루도서관
813,7-이54호

고창출신 이성수 작가가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에 이어 두 번째 펴낸 동학농민혁명 역사소설집이다. 동학농민혁명군 최후의항전지인 대둔산을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은 비록 상상력을 동원한 문학작품이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박사의 논문을 재해석하였다. 엄동설한에 70여일동안 항전을 벌이다 장렬히 산화해간 혁명군들의 모습에 어느새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낀다.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

김형석 / 덴스토리 / 2018
군립도서관
104-김 94호

얼마 전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나와 화제가 됐던 100세 철학교수 김형석 선생님의 산문집으로, 군립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양글방]의 1회 선정도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평생에 걸쳐 써온 글 중 알짜배기만 모았다 한다. 인연, 이별, 종교, 죽음에 이르는 문제까지 노교수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군립도서관 종합자료실 이용시간 변경 안내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시행으로 2019년 1월부터 종합 사회과학 자료실 이용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자료실	열람일	휴관일
평 일	09시~22시	09시~22시	매주 토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일요일 법정공휴일	09시~18시		

[안 내] 2019년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귀농귀촌 1번지,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농업인의 꿈, 여기서 준비 하세요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해 예비귀농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모집 세대수 : 30세대, 신청서 접수 : 1월31일 오후 6시까지
- 선발 대상(만 65세 이하)
 - 고창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창업을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
 - 모집공고일 이전 농여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기준)

- 교육생 선정시 우대사항
 - ※ 만 2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입소정원의 30% 우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 접수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창업센터/F팀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 문의전화 : 063)560-8880, 8881, 8882

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사용절감을 위해 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2019.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45㎡ 이상)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제과점(식품접객업 중) 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위반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